

일본어로 풀어보는 일본사회: 와리칸(割り勘)

일본에서 여럿이 식사를 한 후 자기 몫을 각자 나눠 내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, 이는 ‘남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나도 피해를 보지 말자’는 것에서 시작되는 듯함

□ 일본식 개인주의의 상징 와리칸

-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주는 것도 썩 내키지 않아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일본사람의 특징은 와리칸(割り勘)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
-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다양한 대인관계가 어긋나지 않고 순조롭게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분명 서로 간에 지켜야 할 무언가의 약속이 있고 서로 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성역이 있음
- 그 약속이 깨지게 되고 성역이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사소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임
- 일본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,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그들만의 약속된 행동을 와리칸 문화를 통해 찾아 볼 수 있음
- 누구와 함께 혹은 여럿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버스를 타는 모든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은 오로지 내 것만 생각하면 됨

- 내가 한번 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얻어먹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인관계의 무언의 약속이 바로 와리칸임
- * 상사와 부하직원, 스승과 제자 간에도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와리칸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

□ 일본 특유의 문화적 색깔 와리칸

- 문화의 질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으며 좋은 문화가 있고 나쁜 문화가 있을 수도 없음
- 한 나라 문화는 역사적으로 혹은 발전과정에서 그만한 생성 이유가 있는 고유의 영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와리칸이 우리와 다르다고 어긋난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임
- 일본사람들은 왜 와리칸을 하는가? 이런 물음에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편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 편하다는 것은 그 이전에서 구속되기 싫다는 일본 특유의 문화적 색깔이 있기에 그렇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됨
- 일본은 ‘우리’가 되기 전에는 관계를 엄격하게 구분되는 사회를 고수 하고 있으며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다면 와리칸 이상의 싸늘함을 인간사에서 느끼게 됨
- 일본이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판매기 대수가 많다는 것으로 가히 일본은 자동판매기의 천국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임

- 인구대비 자동판매기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으로,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료 자판기에서부터 담배, 잡지, 신문, 꽃, 여성용 스타킹에 이르기까지 기계와 맞대고 구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건이 너무나도 다양함
- * 그렇다면 왜 일본에는 자동판매기가 많은 것일까? 음료수를 파는 조그만 슈퍼마켓 앞에도 버젓이 다양한 음료를 동전으로 손쉽게 빼먹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놓여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좁은 공간을 확보하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음
-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혼자 조용히 기계와 마주 보고 용무를 해결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됨
- * 주고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간의 관계보다 동전만 넣으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동판매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됨